

좋은 의학학술지 만들기

의학학술지는 독자에게 구독료를 받는가에 따라 유가지와 무가지로 나누고, 발행기관에 따라 학회 발행과 출판사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간혹 국가 기관이나 연구소, 제약회사와 의료기 회사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나 발행 목적이 특수하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외국의 저명 의학학술지는 대부분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지로 독자의 확보를 위하여 학술지를 좋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지는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하여 좋은 종설을 많이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학학술지는 대부분이 학회 발행이며 무가지이므로 외국과의 비교는 어렵다.

1. 의학학술지의 발행 목적

게재되는 논문의 대부분은 연구결과의 발표인 원저와 증례보고이며 회원의 교육을 위한 종설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논문들로 채워진다. 또한 학회의 공식 잡지이므로 학회의 소식이나 행사계획 등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재하고 있다. 대부분이 무가지이므로 관련 업계의 광고를 게재하여 발행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의학학술지를 판매할 경우 국내에서는 판매부수가 매우 적어 판매 대금에 의한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학술지는 매우 적고 취약한 실정이다.

게재되는 논문은 당연히 연구 열의에서 얻어진 순수한 연구 결과의 발표이어야 하지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나 승진, 승급에 필요한 논문, 또는 경쟁적으로 연구비 획득을 위한 의학적 중요성이 결여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논문의 질을 떨어뜨린다.

2. 좋은 잡지

좋은 잡지는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논문에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물론 학술지마다 독자층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

3. 좋은 학술지의 요건

학술지는 논문, 광고와 소식 등을 모아 인쇄, 제본된 책자를 말한다. 학술지가 좋아지려면 내용 즉 논문이 우수하여야 하고 기타 잡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고 독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 논문

우리 나라 국민성은 형식보다 질을 중요시 여기고 질보다도 양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좋은 잡지가 되려면 소수의 좋은 논문을 선택하여야 하고 형식에서의 완벽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투고 규정을 무시한 원고는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질은 창의성이 가장 우선되며 다음 학문적,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제가 항상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논문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편집진에 있다. 즉 저질의 논문을 게재하는 책임 역시 편집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심사와 편집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분 역습 뒷부분에서 취급될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나. 잡지

잡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논문과 광고 그리고 편집인이 관리하는 부분이다. 잡지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먼저 논문의 질과 종류를 들 수 있다. 해당 학회지의 성격이나 독자의 구성에 따라 논문의 종류는 상이할 수 있어 원저, 증예보고, 종설 기타 논문의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편집인이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잡지의 표지에서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투고자를 위한 투고규정을 잘 만드는 것은 물론 논문의 형식, 글자의 형태와 크기, 그림이나 사진에서 화질의 균일성, 격식과 품위를 갖춘 적당한 분량의 광고, 잡지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 표지를 포함한 전체의 디자인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독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

논문 작성의 기본인 [짧은 논문 만들기]는 독자들에게 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잡지의 경제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편집인은 경제적인 잡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행정적인 면

학술지가 발간과 함께 독자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는 이미 출간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색인(indexing)이며 독자적으로 또는 색인기관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권말에 또는 별책으로 색인집을 발간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널리 인용되기 위하여 국제적인 색인기관 즉 Medline이나 SCI Search 등에 등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 중 대부분

이 Index Medicus에 등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술단체 자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도 국내 문헌의 색인을 위한 KoreaMed 사업이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 대부분이 무가지이기 때문에 전회원에게 배포되는 반면, 오히려 당연히 배포되어야 할 도서관 등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판매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배포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국으로 배포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잡지의 도덕성

중복출간이나 표절, 공저자의 책임 등은 저자 자신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편집인은 꾸준한 홍보와 심사과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논문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산학협동이 활발해지면 제품 선전에 논문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약품 효능에 대한 잘못된 논문은 질병의 치료를 오도할 수 있다.

환자 비밀의 노출, 소아나 여성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잔혹한 동물실험이나 신체 조직을 사용하는 연구 등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인지는 편집인의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학학술지가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은 잡지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술지의 편집을 전담할 사무직원을 두고 훈련된 원고편집인(copy editor)와 영문교정인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경제 여건상 대부분의 학술단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고 방법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심사과정에서 오류를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인쇄과정에서 자동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